

■ 2017년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작품 선정회의 총평

- 사업유형 : 2017년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작품 공모
- 회의일시 : 2017. 3. 6.(월) 10:00~12:30
- 회의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2층 회의실1
- 심사위원(가나다순) : 김경태, 김철리, 소홍삼, 장계환, 정인석

2017년 아르코 · 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 작품 공모사업은 신규 관객층 개발과 대학로 활성화를 위해 ‘세대 공감형’ 과 ‘청소년 친화형’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수한 공연 작품을 선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127건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세대 공감형 공연’ 대극장 1건, 소극장 1건과 ‘청소년 친화형 공연’ 대극장 2건, 소극장 1건을 구분하여 5명의 심사위원들과 논의하였다. 심사대상의 공연은 연극, 뮤지컬, 무용 등의 재공연 작품으로, 연극이 총 58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되었고, 무용 24건, 뮤지컬 23건순으로 접수되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오랫동안 사랑받은 수준 높은 작품들 뿐 아니라 최근에 공연되어 주목을 받기 시작한 작품들도 많이 접수되어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은 본 공모사업은 단순히 작품 제작비의 일부를 주는 사업이 아닌 공연장과 공동으로 기획하여 올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렇기에 우수한 작품들이 많은 만큼 한 작품이라도 기획의 가능성을 열어두어 심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최종 작품을 회의에서 선정하기보다 제작환경과 일정 등에 있어서 공연장 측과 공연단체와의 세부적인 조율을 통해 공연진행 가능 여부가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 결과, 각 대상마다 2배수의 작품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였고, 우선순위대로 공연장 측과 공연단체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 후, 공연가능 여부를 최종 선정하는 방식을 마련하였다.

심사 과정에서는 공모사업의 취지에 맞게 관객들이 작품에 쉽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대중성과 작품성, 단체의 역량을 면밀히 평가하였다. 또한, 허용된 기간 동안 관객을 수용해 낼 수 있는 흥행성 부분 또한 지난 공연 실적 등을 근거로 하여 판단 가능한 수준에서 가늠해보았다. 같은 시기라 하더라도 규모가 큰 대극장의 경우 관객의 반응도에 대한 가능성에 더 초점을 맞추었고, 소극장의 경우 참신하고 예술적인 시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였다. 선정 기준은 극장 규모별 혹은 시기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긴 했지만, 모든 작품이 기 공연된 작품인 만큼 작품의 완성도는 절대적인 심사 기준이었다. 장르에 따른 극장 규모를 정하고 심사한 것이 아니었으나, 위와 같은 기준에 근거하여 작품을 심사한 결과 대극장에는 뮤지컬과 무용 장르가, 소극장에는 연극 장르가 선정되었다.

주제별로 심사 기준을 살펴보면 ‘세대 공감형 공연’은 기획 의도에 맞추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작품들을 가려내고자 노력하였다. 선정된 작품들의 경우, 충분히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족과 함께 하거나 친구끼리, 혹은 연인이 함께해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청소년 친화형 공연’은 공연에 입문하는 청소년들이 공연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친화형’ 대상 공연 시기들 중 일부가 연말인 점을 고려하여, 학기 중에 있는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곧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을 예비 성인들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작품을 가려내고자 하였다.

어느 시기가 공연을 보기에 좋다 혹은 좋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생각되지만 날씨 화창한 봄날에 많은 관객들이 하고픈 사람들과 함께 이번에 선정된 우수한 작품들을 관람하러 대학로예술극장을 많이 찾아와주기를 바란다. 또한 1년을 정리하는 11월과 12월에는 학업에 몰두하던 학생들도 공연 예술을 통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심사위원 일동